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3년
2024년 9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298 호

종조멸도절 종령 법어

밀교중흥이 종조 유훈 참되게 기리는 길



종령 지성 대중사

오늘은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교의 불보지였던 이 땅에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딛으셨던 분이 종조 원정 대성사님이었습니다.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불법이 생활 속에 담기고, 생활이 불법과 다르지 않는 수행의 길이 열리게 되어 우리 종도들은 삼밀과 육행을 수행덕목으로 하여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밀수행법으로써 결인을 맺으며, 진언을 외우고, 마음으로 불보살과 그 진언을 관함으로써 삼밀수행의 공덕을 경험하고 체득하여 그 오묘한 진언의 공능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조님께서 “국가와 사회 또는 한 교단이 활발히 일어나 번창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이다.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멀하지 않고, 현실은 바뀌어 변해가나 진리는 영원하

며, 재물은 시간이 흘러 없어지는 것이지만 명예와 인격과 덕망은 영원불멸한 법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위하고 자기 교화에만 집착해선 안 될 일이다.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세우가는 대아적인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곧 생활불교라야 한다는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열반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신심으로 밀엄국도의 대원을 이룩하고 나아가 전 인류가 진언밀법으로 하나되어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십시오.

아울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길이 융창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53년 9월 8일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장

본산 총지사 승강기 대작불사 회향

‘신심도 함께 절로 오른다’, 8월 24일 본격 가동



본산 총지사 승강기 설치 대작불사가 원만 회향됐다. 총지사 주교 목경정사가 교도들의 뜻과 함께 승강기 설치의 대서원을 세우면서 지난 5월 23일 불사의 첫 삽을 뜬 이래 총 3개월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총지사는 지난달 24일 12시 서원당에서 승강기 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하고, 종령 예하를 비롯한 참석 스승과 교도들이 공식 가동을 위한 완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환희심으로 맞이했다. 목경 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총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서울경인교구 스승, 또 이날을 기다리며 불사에 일심으로 동참해온 총지사 교도들이 환한 얼굴로 자리를 빛냈다.

종령 예하는 축사를 통해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나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고 말했다. 또 “총지사 설립 48년 만에 세워진 대서원에 정진해오신 총지사 스승님들과 교도들 그리고 118년 만의 폭서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사부대중의 행복을 발원했다.

총리원장 우인 정사는 “백세시대를 맞아 시의적절한 원력을 세우시고 정진하신 총지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발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며, “누구나 서원당에 올라 불공하고 복덕을 증장할 수 있는 총본산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총지사는 이날 주교 목경정사 합장으로 대작불사 과정과 회향의 감사의 뜻을 담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조/법/어

미타불과 같이 살면 지혜 열려 안락하고
성취불과 같이 살면 대정진에 고 여인다.

지 면 안내

- 6면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 8면 밀교법장담론
- 10면 총지로 여는 삶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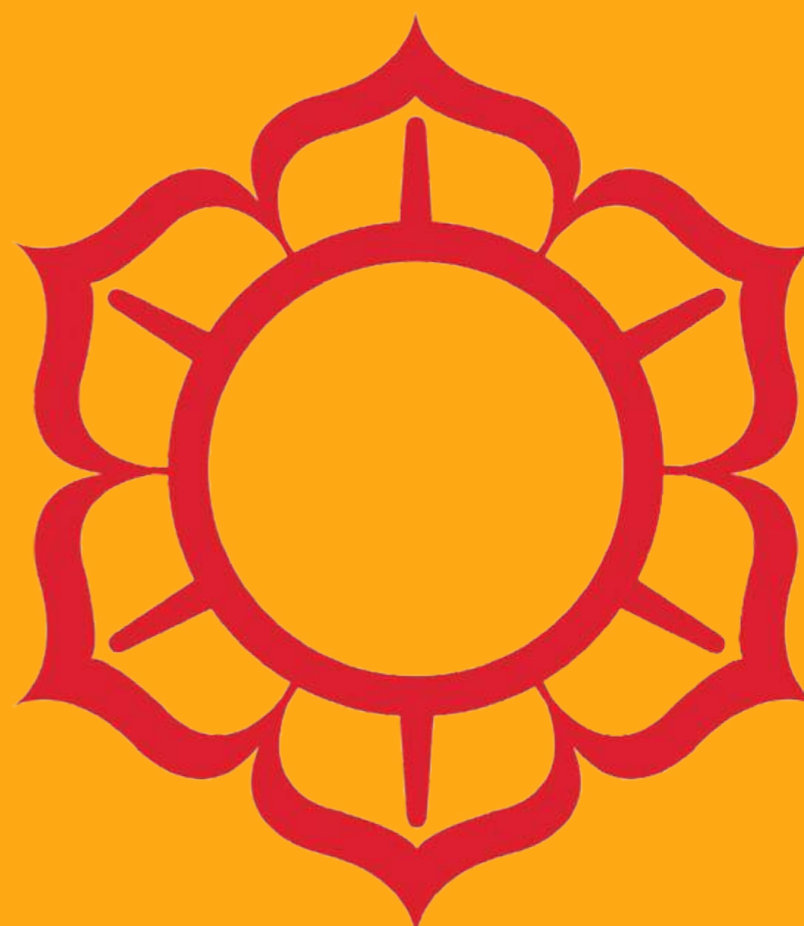
제44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총기 53년 9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역삼동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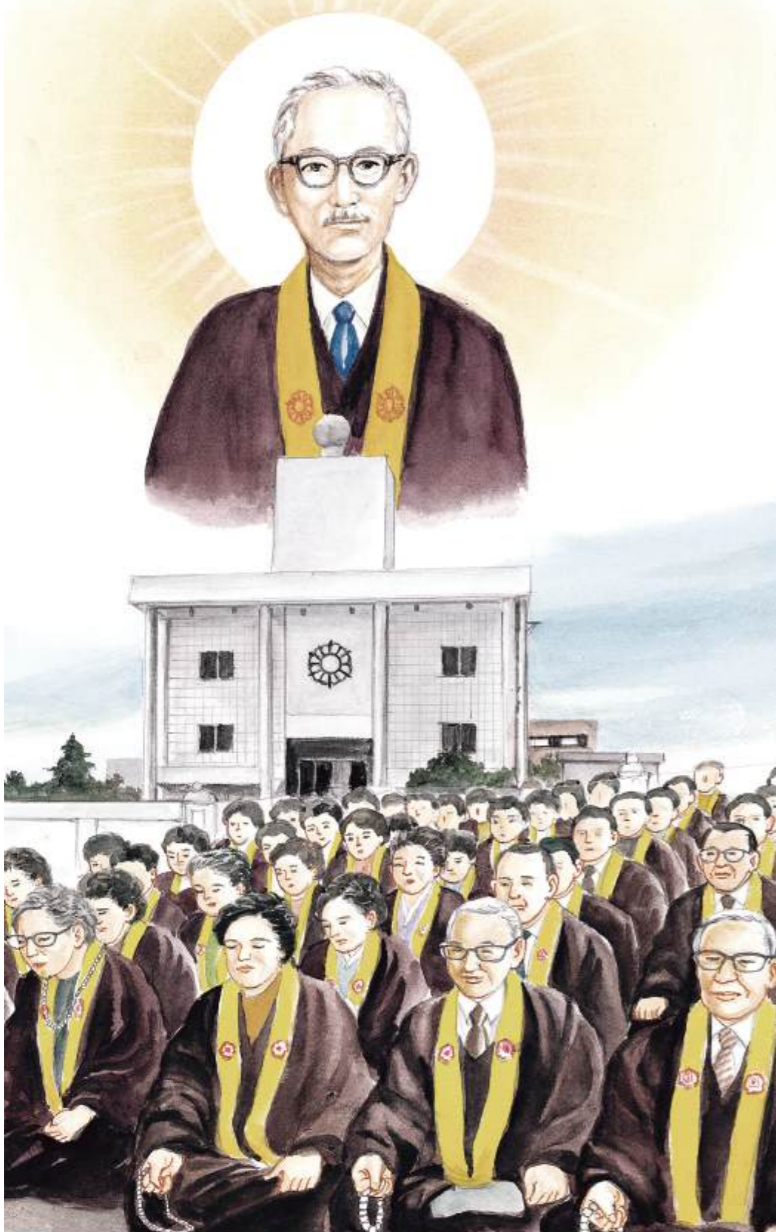


종조 멸도 제44 주기 특집 - 돌아보는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총기 9년(1980년) 9월 8일(월) 오후 11시 30분 종조(宗祖) 이신 원정(苑淨)님께서 74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사바세계를 뒤로하고 열반의 피안으로 떠나셨다. 9일 새벽이 되자 전국 승단에 부음(訃音)을 전통(電通)으로 전했다. 장의위(葬儀委)를 구성하고 5일장으로 하되 종단장으로 결정했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본산 정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승단과 교도 그리고 내빈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결식을 엄수하였다. 장의행렬은 끝을 찾아볼 수 없었고 종조님의 육신은 영원한 반열반에 드시어 다비로서 사리(舍利)를 남기시었다. 수습하여 본산 총지사 서원당 정호실에 봉안하였다.

- 총기 9년 교사(敎史) 중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으니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함이 없으니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 없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말이 패역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들어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가느니라.

희사공덕은 어떠한 것이냐?

현재에는 곤란재앙 우환질병을 미리 없어서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드러난 상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느니라.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여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 지느니라.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다.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이니 나의 작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오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윤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케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지 말며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재물을 도적질 말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지 말며 자기 말의 신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를 속이지 말며 자기에게 화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에게 이간을 하지 말며 스스로 만족을 받으려거든 탐욕을 내지 말지니라.

1면에서 이어짐

메시지에는 “승강기불사에 동참해주신 교도들의 사연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며 “종령님께서서는 취입식 축하금 봉투를 그대로, 또 교도들의 대부분은 서원당 오실 때마다, 어떤 분은 매일 먹던 간식을 끊고 간식비를 모아, 또 태중의 아기 순산, 자녀들의 순탄한 삶을 기원하며, 어느 보살님은 거동 불편한 어머님을 위해, 그간 해오던 적금의 만기가 하필 이때임은 보시하라는 법문이라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기로 스승님은 법륜회비 전액을 총지사 교화 발전과 유언중생은 해 갖는 계기라고 회사하셨습니다.”고 회고하면서, 동전부터 고액수표까지 거의 대부분 무상함으로 대작불사를 회향하게 된 사연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멀리서 가까이서 승강기 대작불사에 동참하시고 회향시까지 기도정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자자손손이 무탈의 행복을 누리시길 서원합니다.”고 발원했다.

전문 12면

승강기는 간접 유압식 리프트로, 총 중량 190kg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사원의 중앙 1층으로 들어서면 윗층으로 올라가는 오른쪽 계단 안쪽에 승강기 문이 설치됐으며, 2층 원정기념관, 3층 서원당을 잇는다. 입구와 내부는 편백나무를 설치해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고급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구현했다. 승강기 외부는 거울을 장착해 밖에서 탑승자가 보이지 않는 효과와 함께 기존 사원 외관에 세련됨을 더했다.

총지사는 올해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부터 공식불공 특별 서원사항으로 ‘총지사 승강기 설치 불사’를 추가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원만 성취 이루어지기를 발원해 왔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 2월 제206회 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총지사 승강기 설치 불사를 추진하는데 적극 힘을 보탰다.

3월 18일 승강기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 상반기 불공이 끝나는 5월 23일에 공사를 시작해 총 3개월 시공 끝에 8월 22일 준공했다.



통리원, 제208회 원의회 개최
종무원 복무규정 현실화 개정 등

제208회 원의회(의장: 우인 정사)가 지난 8월 20일 통리원에서 개최됐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록경 정사, 재무부장 승원 정사는 이날 회의에서 법륜회법에 따른 사원 지원 및 현행 노동법에 따른 종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결의했다. 개정된 복무규정은 특히 제3장 인사, 제4절 휴직에 있어 가족돌봄 휴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허용범위를 넓혔으며, 휴직에

있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육아, 가족돌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50세인 정년을 60세로 사회법에 맞춰 현실화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일에 포함되어 휴가(연차) 산정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및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제 9장의 규정은 현 노동법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을 복무규정에 반영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5,000	₩ 40,000

“한·중 국민과 전 세계 평화 위해 노력하자”

통리원장 우인 정사 등 한국불교대표, 북경 중국불교협회 방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자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한국불교 대표자들이 지난 8월 29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 위치한 중국불교협회를 방문하고, “양국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 양국 국민들의 마음 평안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1953년 창립한 중국불교협회는 중국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종무 조직이다. 전국 지방 불교협회 업무 관리, 지역 주교 사찰 방장 임명, 수계의식 관리, 한국 등 다양한 국가와 우호교류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 중국불교협회장이자 광제사 방장과 중국 불학원 원장인 연각 스님은 협회를 대표한 환영사를 통해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등 힘든 여정을 원만히 마치고, 중국불교협회에 방문해준 한국불교 대표자들을 진심을 담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불교가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주면서 공동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하면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해 양국 불교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종단협이 주최한 ‘한국불교 지도자 중국 불교문화 교류사업’의 일환으

로 마련됐으며, 양국 대표자들의 환담과 만찬으로 이어졌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광제사 대웅전과 도량 곳곳을 참배하며 중국불교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으며,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한·중 불교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했다.

양국 불교계는 오는 10월 15일 중국 절강성 설두사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불교포럼’에서 다시 만나 다채로운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오대산 성지순례, 운강석굴 참배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8월 30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운천사·단향사 중국 일대서 관불행사 스승과 교도 불심 여정 3박 4일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와 단향사(주교: 지홍 전수) 스승과 교도들이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성지를 참배하는 관불행사를 다녀왔다.

혜봉 정사, 지홍 전수를 비롯한 10명의 참가자들은 구화산 지장대보살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을 참배하고, 항저우 중국 10대 사찰 중 하나로 1,600년 역사가 깊은 영은사 등을 순례하는 등 신심을 높이고 불심을 다졌다.

지혜의눈

존재에서 관계로

식민지 근대화론 시대착오적 주장 관계의 정확한 표현은 ‘연기(緣起)’

8·15일 광복절 행사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다시 친일파 논란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부각되었네요. 조선 망국의 원인에 대해 내인론은 조선이 내적인 발전이 없는 정체된 사회였다는 주장이고, 외인론은 일제의 침략입니다. 비록 조선이 정체된 사회라고 하여도 일제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지만, 조선이 서양이나 일본보다는 느리지만 나름의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은 식민 통치를 통해 비로소 한국이 근대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근거해 식민 통치를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넘어 미화하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이 경제성장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에 쌀을 수출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을 예로 들어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계층은 지주들입니다. 이들은 쌀을 수출하여 생긴 화폐소득으로 공장건설이나 건물을 세우는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주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작료를 높여 같은 조선인인 소작농을 수탈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지주계층에게는 수출이고 다수의 농민에게는 수탈입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지주나 자본가들은 일제에 협조하여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친일지주나 매관자본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다수 조선인들에게는 수탈이었던 것이죠. 전자에게는 식민지를 통해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식민지 수탈론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일제 강점기를 계층에 따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라는 입장에서는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같은 시기에 독립운동에 나서 재산과 생명을 바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독립운동은 근대화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양보한다 하더라도 일제의 식민통치는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배경은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서구식 근대화의 이유로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친일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진 사상과 예술분야의 문화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소중한 자산이고 한국이나 중국과 일정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전통에 의지하여 전개된 근대 문명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서 현대로의 사상적 전환을 보통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으로 보고 있는데 과학의 발달에 의해 거대한 사상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구호가 ‘존재에서 관계로’인데 ‘관계’를 다룬 말로 치환한다면 과정이고 보다 적합한 개념은 연기(緣起)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상호 협조하여 이러한 새로운 사조에 나름의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친일청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종속적이고 열등한 입장에서의 굴종적인 친일은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관계를 해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종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법신 구현은 내가 스스로 진리의 몸 된다는 뜻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2절 현밀이교(顯密二敎)의 차이점

1. 현밀이교(顯密二敎)의 비교

라) 현교는 삼밀이 없고 밀교는 삼밀이 있다.

삼밀은 행자(行者)와 법불(法佛)이 직접 상응(相應)하는 것이다. 구밀, 심밀, 의밀이 그것이다. 뜻으로 본존(本尊)을 관하고 몸으로 밀인(密印)을 결(結)하고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이 본존삼밀을 행자가 동일하게 행하는 고로 소위 비밀이 상응하는 까닭으로 이르되 유가삼밀이라 한다. 이렇게 하여 속달한즉 거수동족(擧手動足)이 신밀 아님이 없으며 개구발성(開口發聲)이 구밀 아님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즉신성불이라고 하는 차제이다. 이렇게 되면 삼체의 모든 일에 통달하게 되고 다음에 육신통(六神通)도 얻어지며 호풍환우(呼風喚雨)도 하는 신통변화(神通變化)가 자유자재하여 지는 것이다. 뜻으로 녹록(碌碌)한 세간사에 얽매어 자멸(自滅)되거나 말입니다.

삼밀에는 삼, 사백중이 있으니 한손가락을 굽히고 한손가락을 펴어 능히 좌우(左右)로도 하여 능히 천지의 기상(氣象)을 변화시키고 인간단사가 자유자재 하니 전혀 삼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 교주(敎主)의 차이점과 본존(本尊)

법신불의 체상용(體相用),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식(識) 육대를 체(體)로 하고 대만, 삼매야만, 법만, 갈마단인 사만(四曼)을 상으로 하고 신어(身語意) 삼밀을 용(用)으로 한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대소물체[기체(氣體), 고체(固體), 액체(液體)]가 이에 넘지 않는다. 그런고로 법신불이 총섭(總攝)하는 것이다. 일체의 구성요소(構成要素)와 일체의 형태(形態)와 일체의 활동변천을 총괄(總括)한 것이 법신대일여래(法身大日如來)라. 그러므로 근본불(根本佛)이며 본초불(本初佛)이며 단일의 상항불(常恒佛)이다.

(1) 석가여래불은 인간으로서 깨쳐, 성불하고로 여팔상륙(如八相緣) 법신불과 본질적으로 상이(相異)한 것이다.

(2) 본존관음보살

법·보·화(法報化) 삼신을 갖췄으나 다른 불보살은 이런 예가없다. 법신을 갖췄음은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에 설(說)한 바와 같이 그 한 털구멍 중에 보현보살이 12년을 돌아도 그 변제(邊際)가 없었다는 것이 곧 이를 말하는 것이다. 또 한 털구멍 속에 백천만억 금산(金山)이 있고 또 무량세계가 있다는 것이 곧 이것을 말한다.

보신(報身)을 갖췄다는 것은 그것이다. 명호를 갖춰서 염하면 다 모두 결박(結縛)한 것이 해탈한다 하며 한번 지옥에 이르면 수족(手足)에 물이 난다함은 모두 목마른 자가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며, 화신(化身)을 갖췄다는 것은 보왕경에와 같이 무수한 세계를 두루 다니며 무량중생을 구도했다 함은 성마왕이 되어 대상주를 구도하고 그 밖에 아수라왕을 구도하고 지옥중생과 천인 등 무량중생을 구도한 것이 그 또 관음보살은 현밀에 모두 통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고 33신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니 그런고로 계승에 이르기를 "사바왕래 팔천도(八千度)에 삼세이억 동일체"라 하였다.

사) 현밀(顯密)의 세계관(世界觀)의 차이점

현은 심본색말(心本色末)의 관법, 밀은 색심불이의 관법, 현은 부정적(否定的), 밀은 긍정적(肯定的), 부정은 현실도피적(現實逃避的) 긍정은 현실참여적(現實參與的)으로 현실 속에 파고든다.

현은 반과학적 반물질적이지만 밀은 과학을 포섭(抱攝)하고 물질을 구사(驅使)한다.

현은 일원적(一元的)이요, 밀은 이원다원적(二元多元的)이다.

현은 내세(來世)에 치중(置重)하지만 밀(密)은 현세(現世)에 치중(置重)한다.

현은 인분가설(因分可說)의 담이요 [불과(佛果)를 증(證)함에 이르기까지의 인위(因位)의 수행경계(修行境界), 즉 상대계(相對界)]

밀은 과분가설(果分可說)의 담(談)이다. [불과의 경계 곧 절대계(絕對界)]

가)법불교적(汎佛敎的) 문제, 나)현밀(顯密)의 차이점(差異點), 다)현교와 밀교의 명칭 해설, 마)성불론의 차이

<생략>

종교의 변천은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다. 종교 역시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시대적 폐해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루면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거나 타락하면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해방 후 한국불교는 조국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전환기를 맞았다. 조선을 거치며 쇠퇴했던 불교를 어떻게 다시 되살리고, 일제 강점기로 혼탁해진 수행 전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과제였다.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척박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불교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였다. 이에 원정 대성사는 새로운 불교운동으로서 정통밀교종단을 창종했다.

내세와 기복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현실을 끌어안으라 했고, 모든 것을 마음범으로 돌리며 뜬 구름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색과심이 둘이 아니라 했다. 불교를 허무주의로 잘못 받아들이는 풍조에 대해 삶을 긍정하라 한 것이다.

사실, 불교가 본래 그렇다. 나와 남을 모두 존중하는 철학적 기초가 무아이고, 변화를 알고 희망을 그려나가는 힘이 무상에서 나온다. 다만 믿는 이들이 우매하여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실천할 뿐이다. 초기불교, 대승불교, 현교, 밀교,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끌고 도울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불교라 말할 수 있다. 기도, 염불, 명상, 참선, 삼밀, 그 어떤 수행을 닦는다 해도 스스로 부처를 닮아가고 대중을 감화시킬 때 참된 불자라 할 수 있다.

현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평가는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잘못된 인식과 실행 모습을 지적한 것이며, 여기에서 벗어날 길을 밀교의 가르침에서 찾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들은 원정대성사의 신랄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나의 실행이 내세에 기울어져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이기적인 구복에 머물러 중생구제의 원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

는 않은지, 지금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매서운 질타로 들린다.

그리고 비로자나 법신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본다. 밀교는 비로자나 법신불을 본존으로 모신다. 비로자나 법신 대일여래는 진리 그 자체이다. 불보살님의 상이 아닌 옴마니반메훤 육자진언과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진리 자체를 믿고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형상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신앙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한 근기가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불보살님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진리에 가닿겠다고 하는 것이니 적당히 할 수 없다. 선에서 이야기하는 직지인심, 곧바로 본성에 가닿아 견성 성불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법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그대로 자신의 말과 몸과 마음에 구현된다는 뜻이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몸이 실제로 진리 그대로 된다는 의미이니 그것이 즉신성불이다. 원정 대성사는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신밀 아님이 없으며, 입을 열고 소리를 내는 모든 말이 구밀 아님이 없었다 했다. 즉신성불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불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 구현된다는 것은 이처럼 내 스스로가 진리의 몸이 된다는 뜻이니 그 목표와 서원이 보통 큰 게 아니다.

결박당하고 목마른 이가 해탈하는 보신의 경지와 무량중생을 구제하는 화신의 경지가 모두 법신불의 화현이니 그래서 원정 대성사는 하나의 털구멍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중중무진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으리라. 그러니 대성사의 말씀처럼 세간사에 얽매어 지낼 까닭은 추호도 없지 않을까?

법신 대일여래를 신앙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대하고 당찬 서원을 확실하게 세우고 수행 정진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공덕은 나날이 수승해질 것이라 믿는다.

BBS「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자식을 부모의 생각·관념으로 육아매션 안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물을 것 없이 자식의 합격을 위해 기도요, 축원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도란 무엇을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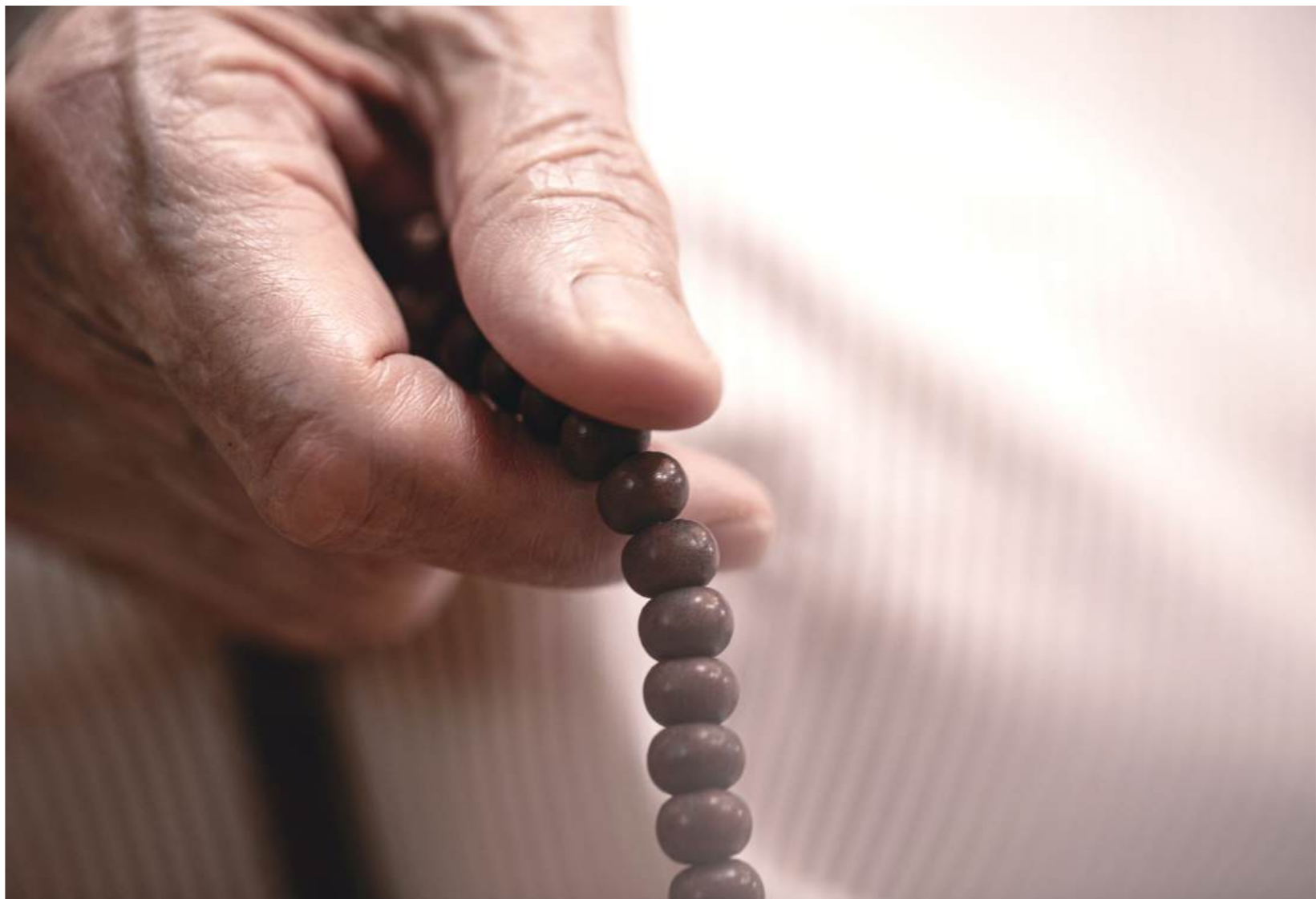
기도에는 속엿말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진실과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 뜻에 울림이 없다. 그러니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맑은 눈과 투명한 가슴으로 자기 몫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성 자체가 원래 신령스런 영성이요, 밝은 불성이므로 그 심성이 잡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내 소원을 담은 기도는 내 자신의 것이 되어 내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언젠가 한 어머니로부터 얻어들은 말이 생각난다. 평소 공부를 잘한 아들이라 대학진학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낙방을 하게 되자 그 어머니는 정말로 미칠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의 진학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못 할 일이 없겠더라는 것. 그때 심경으로는 가령 도둑질이라도 해서 아들이 합격만 해 준다면 주저 없이 도둑질이라도 하겠더라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이런 원색적인 집념으로 인해 혈통이 이어지고 종족이 보존되며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을 법하다. 그러나 자식의 건전한 인간 형성을 위해서는 원색적인 감정보다도 이성적인 이해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도리어 어린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학교의 선택이며 전공까지도 부모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우길 때 자식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주적인 선택과 판단의 능력을 상실, 매사에 부모의 눈치만을 보면서 의존하려는 나약

“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



한 무골충이 되고 만다.

자식을 부모의 예측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부모의 굳어진 생각이나 낡은 관념을 가지고 한없이 뻗어갈 아이들에게 억지로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자식은 부모를 거쳐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부모의 것은 아니다.

다른 일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식 일만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것이지만 부모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육아매션고 해서 안 된다.

대개의 부모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의식이며 온갖 타락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자

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입신출세할 수 있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바란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들어가 주기만을 바라지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대학에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눈앞에 닥친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자기 자식이 인격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어떤 생활태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는 일은 보다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관심은 대학에 들어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발판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능만을 중요시하고 있는 현대교육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깨닫게 하지 않고, 오로지 더 많은 이론과 사실만을 주입시키고 있다. 바람직한 교육은 우

리들 자신을 아는 일에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삶은 가치부여를 할 수가 없다.

아무 걱정 없이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적인 깊이와 폭을 재수를 거친 학생들한테서 더러 느낄 수가 있다.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통해 안으로 눈이 열리고 거듭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인생의 도상에서 볼 때 한두 해 늦게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성실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또 사람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든 안 가든 시절인연이 오면 그 그릇을 언젠가는 채우기 마련

이다.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 서도 일어설 줄 알게 하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더글러스 맥아더 '아들을 위한 기도문' 중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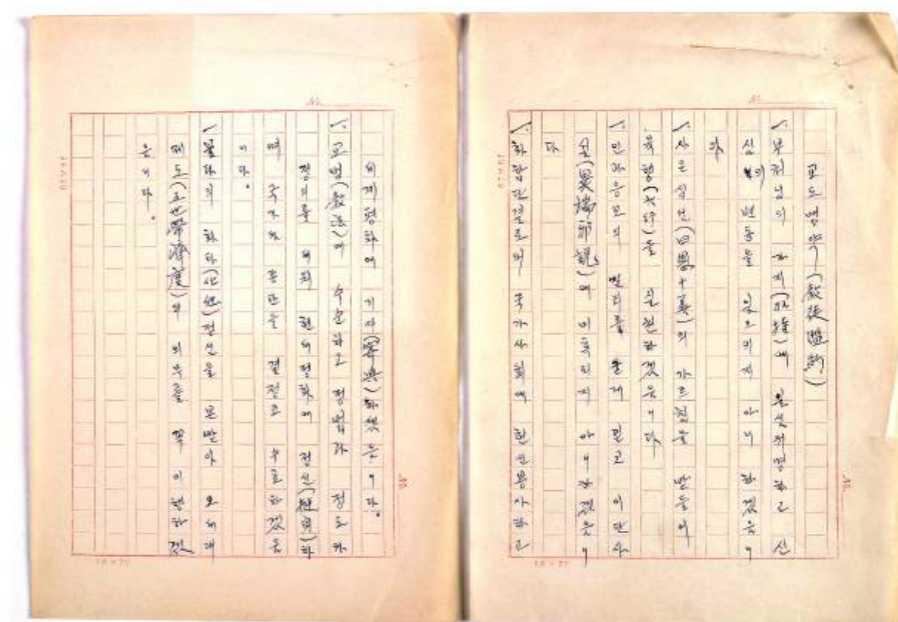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행하는 바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4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교도명약 대성사 목필

1978년 제11회 중앙총회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거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성사 홀로 시작한 길은 뒤따르는 이들의 발걸음에 의해 넓어졌다.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함께 수행의 길로 나아가갈, 대승의 수레가 다닐 정통 밀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날 새로운 종단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종단의 서원을 담은 진언이 염송됐는데, 총지종 창종에 대한 큰 바람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었다.

음자례주례준제 총지종 교세발전 사바하
음자례주례준제 부국강병 국민안 사바하
음자례주례준제 조국평화통일 사바하
음자례주례준제 일체교도가정제재난 사바하
음자례주례준제 일체교도가정소구여의 사바하

수행이 개인의 기복에 있지 않고 총지종의 교세가 발전하여 나라와 사회가 평안하고, 조국이 통일되며, 모든 교도의 가정에서 구하는 바가 두루 이루어지길 축원하며, 세상살이에 겪는 어려움이 사라지길 바란 것이다. 종교는 개인의 염원에서 출발하여 일체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바라는 바가 있기에 믿음에 의지하고, 고통이 있기에 신앙을 갖는다. 그 출발은 개인적이지만 결국 나라와 못 생명의 행복을 원하는 것도 종교가 지향하는 바이다.

첫 의식의 서원은 이런 축원을 담은 진언

으로 시작되었다. 공공서원의 기본 틀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행하는 바이다.”

일의 진행에 대한 대성사의 말씀이다. 법계는 총지종의 창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창종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 총정로(관성사)와 경주 구정리(승천사), 경남 밀양군(일상사), 서울 동대문(밀인사), 경북 안강읍(건화사), 경주 서부동(국광사)에 법단이 설치되고 스승이 임명돼 새로운 밀교의 교화가 시작되었다. 스승들은 수행과 함께 교도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졌다. 당시 대성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도 없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니 스승과 교도들의 마음 또한 굳게 자리를 잡았다. 누구나 물려서지 않는 정진을 기약했고, 법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다. 좋은 일은 나서서 칭찬하고 삼갈 일을 보면 세세히 일러 길을 알려주었다.

“세속 사람들이라도 수양 있는 지성인이라면 인생관을 세우고 생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 하거늘 하물며 중생을 제도하는 성직자로서 뚜렷한 주관 없이 어찌 남을 제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평화를 위한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대승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로 인격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선신(五相成身)의 불퇴전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종이 선포되면서 곧바로 부산 정각사, 포항 수인사, 청주 혜정사에 선교부가 개설됐다. 초창기에 생긴 선교부는 대다수 진각종 스승과 교도 출신들이 대성사를 믿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시작된 곳들이다.

대성사는 바르고 참된 생활 자체가 곧 불공이므로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부처님을 염하고 진실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 사원은 자연스럽게 도심에 세워졌다.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틈이 언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수행도량이 되도록 중생들의 삶의 현장 바로 곁에 사원을 건립했다. 대중들이 내 집처럼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현대식 건물에 사원을 조성하고 수행과 사무행정에 적합한 실리적인 구조를 갖췄다.

또한 밀교의 근본 가르침을 시대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정립했다. 세간과 출세간, 생활과 불교, 남녀노소, 승속의 구분 없이 기도와 생활이 하나되어 성불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종단으로 구체화했다. 생활불교의 실천은 승가와 재가가 함께 닦는 ‘승속동수(僧俗同修)’로 발현되었다. 진각종에서 20여 년 동안 교화의 중심에서 활약한 원정 대성사는, 그런 만큼 창종 이후 제반 제도와 직제를 구비하는 시간도 크게 단축시켰다. 창종 1년도 채 안 되어 1973년 6월 27일 당시 총지종의 총본부인 성북선교부에서 전국의 교역자와 교무가 모인 가운데 전국 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의장 특정 정사의 사회로 종헌을 심의 가결하고 만장일치로 대성사를 종령으로 추대했다. 역사적인 제1회 강공회와 중앙총회, 원의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직제와 행정 및 심의 기구를 확정했다. 종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총회와 행정기구인 통리원 원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뒷받침할 종단의 행정과 심의체계를 완벽하게 갖췄다. 해가 바뀌면서 연초인 1월 9일 총지종 교도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사상이 정해졌다. 교도 맹약(敎導盟約)이다.

1.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에 일심귀명하고 신심(信心)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2. 4은10선(四恩十善)의 가르침을 받들어 6행(六行)을 실천하겠습니다.
3. 인과응보의 진리를 굳게 믿고 이단사설(異端邪說)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4. 화합과 단결로서 국가사회에 헌신봉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 교법(敎法)에 수순하고 정법과 정도와 정의를 세우 헌세정화에 정진하여 국가와 종단을 결경조 수호하겠습니다.
6. 부처님의 화타정신(化他精神)을 본받아 5세대 제도의 의무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는 종교인의 윤리적 덕목과 불교도로서의 의무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밀교의 가르침을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하겠다는 전법의 서약이기도 했다. 아울러 대성사는 전법과 교화를 위해 스승과 교도들을 뒷받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1973년 용달과를 설치하여 전국 선교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나눠주었다. 스승들은 강공회를 마칠 때마다 갖가지 교화용품을 한아름 들고 돌아가기도 하고, 교도들에게 나눠줄 총지의 법문과 다라니, 회사용지 등을 트럭에 가득 싣고 전국 각지를 돌기도 했다.

화음사 교도 광고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인근 시설: 인천주인북초등학교, 세미일공고, 대산고운누리 아파트, 공단종합시장 수협은행, 진도로르빌 아파트, 세브일레본, CN천년컨벤션, 웨딩홀, GS25, 베스티움 오피스텔, 이마트24, 주안역CGV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살아서는 '이고득락' 하고 죽어서는 '왕생득락' 의 문을 열다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 30주년을 맞은 변화

가사와 법의의 일대 변화

창종 30년을 기해 가사와 법의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종단은 그동안 재가수행자 종단으로서 일반인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편한 법의와 약식의 가사를 채택해왔다. 1972년 창종 당시에는 밀교의 사중수법에 근거하여 4색 법의를 채택했으나 여러 색의 법의가 이질감과 혼란을 줄 수 있어 곧바로 흑색 법의와 자색 가사가 보편화되었다. 이후 법의의 색깔 때문에 일본불교의 한 종파로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계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가사와 법의의 개정을 위해 신중한 준비과정을 밟아나갔다. 종단 관계자의 면밀한 검토와 디자인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 2001년 종단의 핵심 교의를 상징하고 승직자의 위엄과 미적 감각을 반영한 새로운 가사와 법의가 공표되었다.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령의 법의는 밀교의 중심 오불 가운데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가사는 우리나라 고승 대덕을 상징하는 전통의 홍색 가사를 채택했다. 일반 스승의 법의는 『대승장엄보왕경』의 "천식재 삼장이 자색 법의를 하사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색으로 하고, 가사는 황금색 가사를 채택했다. 법의의 양 소매 끝단에 신·구의 삼밀을 상징하는 3개의 선을 넣고, 옆 솔기에는 자·수·화·풍·공·식 육대와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개의 주름을 넣었으며, 뒤쪽에 대만다라, 법만다라, 삼매야만다라, 갈마만다라를 상징하는 4개의 주름을 넣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질인 체(體),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인 상(相), 비로자나 부처님의 활동작용인 용(用)을 바탕에 둔 법의가

탄생했다. 가사의 왼쪽에는 태장계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아'자, 오른쪽에는 금강계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밤'자를 범어로 장식하여 삼보로서 공경의 대상이자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자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가사 중앙에는 육합상과 그 안에 종단의 주요 의례 가운데 하나인 '람'자를 새기고 띠 아래에 수다라 연꽃매듭을 부착했다.

2001년 12월 26일 정각사에서 전국의 스승과 1,000여 명의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가사·법의 봉대 가지불사를 봉행했다. 목정 종령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아사리여, 능히 중생을 잘 가르쳐서 모두 다 일심을 얻게 하고, 번뇌의 물을 건네어 악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사리여, 스스로를 잘 다스려 순박하고 맑은 대자비로써 일체중생을 대할 것이다."며 심기일전하여 중생 교화와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 용맹정진을 부탁하였다. 해암 통리원장은 "이 가지불사는 창종 이래로, 종단으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뜻 깊은 일대 대불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몸소 실천하고 체득하여, 여러 가지의 밀교 수법으로 세우신 교상과 사상이, 이번 가지불사로 더욱 체계를 확고히 한, 의미 깊은 불사라 하겠습니다. 가사 하나마다, 연화의 수다라 한 매듭 매듭마다, 그리고 법의 한 자락 자락마다 밀교의 상징과 의미뿐만 아니라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세우신 교의가 깊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하셨다. - 본지 30호, 1면 기사 '가사·법의 봉대 가지불사 성대한 회향'

종단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가사와 법의의 개정은 여타 어느 불교종단보다 철저하고 깨끗한 계행을 실천하고 있는 종단 승



수인사 득락전. 불상에 익숙한 일반 대중을 위한 교화 방법으로 득락전을 조성했다.



2001년 12월 26일 정각사에서 가사·법의 봉대 가지불사가 봉행됐다.

를 제도하기 위한 변화의 바람은 득락전(得樂殿) 삼존불 조성으로 실현되었다. 전통사찰에서는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대개 극락전, 미타전이라고 이름 하지만 종단에서는 득락전(得樂殿)으로 명명했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는 고통을 여의고 영원한 안락을 성취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살아서는 '이고득락'하고 죽어서는 '왕생득락'하기를 발원하는 공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생의 화도방편으로서 천도관정법을 장례법으로 시행해온 종단은 이를 모태로 조상의 천도를 기원하는 별도의 공간인 득락전을 조성했다. 대성사는 이미 총지사 본존 오른쪽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공간을 득락전이라 이름하고 왼쪽에는 상근기 진언행자가 삼밀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목전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경전에 의거하여 중생 관음보살상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형상불을 조성하는 것이 총지종의 교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종 후 줄곧 문자 다루기를 유일한 본존으로 모신 전통에 비춰보면 득락전을 조성하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을 모신 것은 35년 종단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형상의 불상에 익숙한 대다수 시민과 불교인들이 종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부모와 조상 영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교화의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직자의 스승다움에 부합하는 불사였다. 불제자의 법다움을 보여주는 법의(法衣)이자 계행에 어긋나지 않는 수행의(修行衣)이고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복전의(福田衣)를 받들어 보시한 교도들의 마음에는 환희심이 가득했으며, 승단과 교도 모두 심기일전하여 굳건한 수행 자세를 견지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후 2004년부터 자색법의 속에 입는 정복을 황토색 계열의 한복으로 교체하여 통일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시대 변화·대중 요구 부응 '득락전' 조성

정통밀교를 생활불교 재가종단으로 구현한 것에서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총지종의 종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하고도 앞선 시대정신에 입각해 종단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단행했다. 2002년 승단대토론회에서 시대적 흐름과 대중들의 요구에 발맞춰 포교방법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다. 과거의 고루한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도

수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불사법요와 상징례, 49재 천도불사 법요를 재정비하여 득락전 조성의 원칙과 방향, 득락전 조성에 따른 영식천도와 축원불공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2008년 11월 27일 수인사 득락전에 아미타 삼존불과 144존의 원불을 모셨고 12월 11일 성화사 득락전에 아미타 삼존불과 120존의 원불을 모셨다. 이로써 조상의 영식천도불공과 수행 공간인 득락전은 전국 사원에 차례로 조성되었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몽골국립대학 주최로 8월 26~28일 일정으로 국제세미나가 열리는데, 필자도 한 꼭지 발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발표 논문을 요약하면 나란다사에서 이루어졌던 축소·실용·실천주의 경향을 연구해 현대 포교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몽골불교와 한국불교가 서로 협력하여 이교도의 선교에 대응하자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몽골은 한국 종교단체의 선교로 심각한 사회·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교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선교단체를 순진한 몽골사회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종교는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대 인류의 종교는 다종교와 과학의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인류의 종교는 유물론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영적 존재를 믿고 그것이 실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기술에 몰두하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허상의 기술에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는 것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구차제정(九次第定)을 가르쳤다. 붓다는 선정을 통해 삼계를 오가며 관찰했다. 인간의 정신이 삼계를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였고, 해탈을 위해 제자들은 계(界)를 알아야 한다고 설했다. 정신계가 남기는 색계와 무색계의 흔적은 불교에서는 정토(淨土)가 되지만 외도들은 그것이 궁극적 세계라고 쉽게 믿을 것이다. 원주민의 종교조차도 색계에서 종족의 정토가 있을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과학과 친숙한 것은 현실의 실재와 실상을 탐구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 때문이다. 미래 인류는 과거 수천 년 전 인류가 상상했던 신격이나 신화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된다. 인간의 사후 계우 존재하는 이상세계라면 실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일을 기약하는 주식투자와 무엇이 다른가? 종교의 행복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달콤한 상상의 허구와 위로는 마약과 다름이 없다.



불일보조국사진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길어졌지만 발표논문의 요지는 한국과 몽골사회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행복을 위해 미래 양국이 기울여야 할 공동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본 과제로 돌아와서 고려말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은 고려말 중후기 선승으로 고려 선종의 중흥조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창하였다. 1190년 이전의 답선법회에서 결사를 약속했던 동지를 모은 뒤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이라는 취지문을 지어 정혜결사를 선포하였다. 『대혜어록(大慧語錄)』을 보다가 소식을 얻고 10여 년 동안 송광사를 중심으로 선풍을 진작하다가 1210년 3월 27일 대중들과 함께 선법당(善法堂)에서 문답한 뒤, 법상에 앉아 입적하였다.

선사는 당 나라 선사인 규봉종밀(圭峰宗密)의 『법집별행록』을 간추리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지었다. 이 책은 지눌이 입적하기 한 해 전 52세 때 저술로 자신의 소식을 담아 경절문(徑截門)의 수행을 밝힌 것이다. 이

책은 선교통합(禪敎統合)과 사교입선(捨敎入禪)으로 일컬어지는 한국불교의 선맥의 전통을 요약한 것이어서 조선시대 무려 22종의 판본이 출간될 정도로 중요시되었다.

규봉종밀은 『법집별행록』에서 하택종·복종·홍주종·우두종의 선법을 개시했는데 보조지눌은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인용해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원칙을 제시했다. 『사기』에는 일불승(一佛乘)을 사계절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밀종(密宗)은 봄이고, 교종은 여름이고, 율종은 가을이고, 선종은 겨울로서 모두 만나 (일승에) 돌아간다. 밀종은 일불의 대비를 선양하여 중생을 구하는 마음이고, 교종은 일불의 대지를 드러내어 펼치는 마음이며, 율종은 일불의 대행을 지지하는 장엄의 마음이며, 선종은 일불의 대각으로 영지(靈知)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밀교와 더불어 밀종(密宗)이란 말을 언급한 것도 특이하다. 밀교를 두고 일심의 대비심이라 말한 것은 『대일경』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에서 비로자나여래가 일체지(一切智)를 성취해 신변(神變)을 나투어 중생을 구하는 장면을 눈여겨 본 것 같다. 선종을 겨울에 둔 것은 경절문에 의해, “안으로 생각과 계탁에 간섭받지 않고 밖으로는 학문과 수행의 공으로 이를 수 없는 것으로 궁극의 겁이 현재에 이르러 모두 자연요묘하여 상지(常知)한다”라고 하여 경절문의 입장을 반영한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 같으면 경절문은 유학(有學)에서 무학(無學)에 이르는 인연이라 말하고 싶고 이때부터 삼신(三身)을 성취할 계기를 얻어 비로소 비로자나여래의 신변(神變)의 지경에 이르는 것이기에 율종을 봄, 교종을 여름, 선종을 가을, 밀종을 겨울에 두어야 마땅하지 않다. 오시팔교(五時八敎) 교상관석에서는 화엄시(華嚴時)가 맨 앞에 오기에 법신불의 장엄을 구경으로 두고 설정하고, 이를 수증해 나아가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원정 대성사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3>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존재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계 전송
- V. 결어

2. 창종 배경과 이념

1) 입교 전 불교수행
원정 대성사가 처음 접했던 불교는 1930년 일본 법화종 계통의 창가교육학회였다. 대성사는 이 단체에서 출판한 책과 경전을 전적으로 삼아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대성사가 하일련에 있었을 때 그곳에는 천태종 제43대 여허 법사가 1924년 창건한 극락사가 있었다. 이것은 대성사가 일찍이 불교수학의 동기와 인연이 있었고, 훗날 일본의 진종과 진언종의 참회법회나 진언수행도 접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성사가 본격적인 불교의 종교체험을 하게 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고려대학교에 유학했던 장남 손순표의 행방 불명이 계기가 되었다. 대성사는 아들의 안위를 기원하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송했다고 전한다.

회당 대종사와 대성사의 첫 만남을 전하는 기록에서 대성사는 차에서 내린 대종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대종사는 전란으로 깊어진 세상의 고통을 구하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대성사는 회당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의 체계를 세웠고, 다른 불교종단에서 볼 수 없는 혁신적 기획과 안목으로 미래 지향의 종단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두 성인의 의기투합은 대성사가 회당 대종사를 만나기 전부터 불교연구에 매진하고 실천수행이 경지에 이른 사실을 보여준다. 대성사는 출세간의 수행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쌓은 실무경험이 있었고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와 독해에 능하였다. 특히 종단의 역경

사업을 주도하였고 몸소 역경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불교의 문헌, 교리, 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견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2) 창종과 역사관
회당 대종사와 원정 대성사가 공유한 시기는 1953년부터 1963년으로 약 10년간에 이른다. 두 성인은 한국불교의 기성 종단들보다 남다른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참회원을 거쳐 진각종을 일으켰다. 두 성인은 의기투합하여 교법·의례의 체계화에 진력하였다. 대성사의 공적역력은 종단체계화와 미래지향적 설계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교 종단이나 학파의 존립에 관해 대성사가 지닌 밀교사관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법설이다.

인도의 대승불교는 중관파와 유식파의 이파(二派)로서 철학체계를 수립하고, ‘나란타대학’을 중심으로 변형하였으나 양파 모두 밀교에 귀착하였다. 즉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완전한 조화의 세계의 이론적 실천적 실현이다. 가장 비근한 본능적 무반성 동물적 생활과 일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공리적 생활에서부터 윤리 도덕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 의식과 자연현상의 발전 관계를 더듬으며 소송에서 대승으로 고양하면서 최후에 절대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 밀교다.

대성사의 밀교사관은 현교의 역사관 전체를 아우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불교 교단사를 살펴보면 석존의 입멸 후 백여 년이 지나 초기교단을 지지하는 상좌부와 범 중심의 유연한 해석을 지지하는 대중부로 나누는 근본분열의 자취를 엿볼 수 있다. 인도 불교 교단의 역사는 테라바다의 전통과 대승불교의 양 전통이 수레바퀴처럼 공존하고 있다. 특히 중관·유식의 양대 철학이 밀교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도 나란타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대성사의 밀교사관은 나란타대학의 전통대로 밀교 성립 이후 현교로부터 밀교로 이어지는 수행차제론(修行次第論)과 현밀겸수(顯密兼修)의 체계화에 동조하는 것이다. 정성준 박사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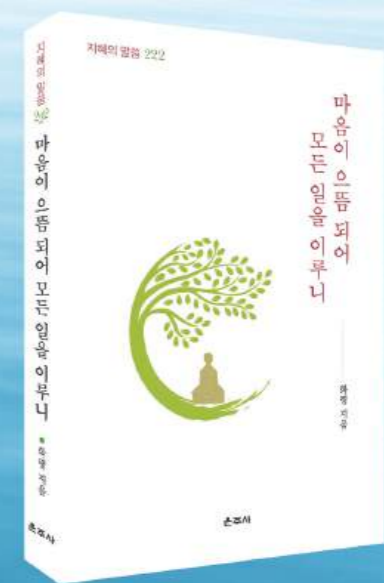
마음이 으뎌뎌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령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With Dharma

AI 시대 불교에 대한 단상

인간과 AI로봇의 공존을 다룬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AI로봇이 깨달음을 얻은 스님으로 나온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래 불교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자신이 주도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저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사

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양자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ug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 혁명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넓은 범주까지 아우른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약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 그리고 생물학적 영역이 상호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존재의 이해와 공존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AI로봇의 작업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간의 삶의 환경변화, 인간과 AI로봇의 공존, 인간과 복제인간의 공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종교의 교화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수많은 유희를 거듭하는 역사 속에서 인격을 완성시켜 왔으며, 높은 수준의 수행 단계를 통해 지혜의 통찰을 완성해 왔다. 생물학적인 진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지식과 지혜의 습득과 기계적인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지식 정보의 습득이 동일한 결과와 동일한 자의식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대상에 대해 상상적 이해와 실제적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말라야식과 아뢰야식, 무아야식 등 진정한 내면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I로봇은 기계의식과 언어의식 단계를 통해 인간의 지식적 체계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까지 발전하겠지만 과연 인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불행 또한 마음에서 나온다. AI로봇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나올까?

불교에서 승직자의 중요한 역할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적 가르침의 제공과 중생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과 조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에 AI가 발전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역할을 AI 챗봇과 가상 AI스님이 대신하여 인간 승직자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

AI로봇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지 AI로봇이 직접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AI 시대 불교를 준비하는 불자들은 AI가 바른 불교의 지식을 습득하여 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교경전,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 등을 AI 기반 플랫폼으로 잘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AI 챗봇과 가상 AI스님이 바른 명상과 바른 수행을 지도할 수 있도록 수행 체계와 수행단계, 그리고 수행 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언어적으로 잘 정리해야 하며, 미래에도 불교의 전통과 의식, 그리고 불교 문화유산이 잘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총지로
여는삼 ②

‘숲해설’을 배우고

이상주 교도 (자유기교가)

퇴직을 하고, ‘숲해설’을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첫째 숲은 모든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솔라시스템). 이 전제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숲은 공격과 방어가 아닌 나눔과 상생의 장이라는 것인데, 식물은 생산량의 3/4을 순전히 나누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으면 나무는 독을 만들어 애벌레를 물리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나무가 애벌레를 불러서 잎을 먹고, 애벌레들은 새를 먹고, 새는 더 큰 포식 동물을 먹이는지는 물어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순전히 해석의 문제이므로 어떻게 이해해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초나무는 잎에서 특쓰는듯한 상쾌한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를 맡고 호랑나비가 와서 알을 낳는지, 아니면 나무가 향기를 뿜어서 호랑나비를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버드나무 줄기

는 껍질을 공처럼 부풀려 흑과리를 위한 집을 만드는데 이 역시 흑과리가 특정 화학물질로 나무를 이용하는데, 나무가 흑과리의 뜻을 받아들이는 방을 만들어 주는지는 둘만이 아는 일입니다. 또 기생식물인 새삼은 다른 식물의 줄기를 감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 양분을 얻어 먹는데,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인지 막무가내로 빼앗는지 역시 둘만이 아는 일입니다. 단, 새삼덩굴이 뿌리를 내린 숙주식물들에게 통신망으로 쓰인다는 사실과 새삼이 숙주식물들보다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아무런 댓가나 염치없이 얻어먹기만 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는 식물이 곤충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나무 줄기나 잎에 난 흑(충영)은 손님을 대접하는 사랑방이라고, 기생식물의 생태는 더부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붙이고, 숲을 나눔과 상생으로 해석하였는데,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

보니 숲과 나아가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삶까지도 훨씬 편안하게 보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우리 뇌의 활동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아직 학계에서도 개척영역이어서 어디에도 명료하게 그렇다거나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뇌는 전두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성적, 계산적, 이기적, 목표지향적, 중독적, 도파민 중심의 사냥모드와 편도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감성적, 이타적, 비중독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세로토닌 중심의 소화모드로 나눌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식물에 대한 지식을 외우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스트레스만 높일뿐 아니라, 식물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행복감을 공유하여 세로토닌 회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각, 청각, 촉각, 변형된 시각을 활용하여 옷ით이

각각에만 집중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숲해설’에서 밀교적인 요소를 꽤 여러가지 보았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태양이라는 사실은 대일여래 사상에 기반하며, 시각적 응시는 관법을, 청각적 감각 활용은 진언법을, 촉각의 사용은 염주의 활용법을 닮아있습니다. 숲에 다녀오는 일만으로도 세로토닌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부처님의 수행이 숲에서 나무를 의지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통하며, 계산적인 뇌를 쉬고 숲과 일체감을 가지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자는 것은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말고 그저 쉬라는 육조 선사 가르침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숲의 풀과 나무를 보며 나눔의 마음을 느끼고 따라하자는 주장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보리심을 일으키자는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덕목과 통합니다.

체계를 갖추어야 밀교이고, 부분적인 방법만이라면 밀교적일 수는 있지만 밀교일 수는 없다는 종조님 말씀대로 ‘숲해설’에 밀교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밀교일 수는 없습니다. 다

만,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하고, 생활속에서 현실속에서 보리도를 실행하여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일이 밀교 수행자 총지교도의 삶이어야 한다면 그 이름이나 행위가 어떻든 또 다른 수행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가장 다양하고 호

과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교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수행법을 자부합니다. 저와 우리 종도님들의 수행이 익고 또 익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여래의 광명으로 널리 비추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 少欲知足 운동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남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배려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처자주 水處作主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은 비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 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림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지원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 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피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아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종지중 대한불교대각종 사)대한불교원흥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총화종 한국불교여래종 대한불교화엄종 재)대한불교영광산교종 대한불교삼존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보현종 보국불교범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범상종 재)한국불교법흥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범화종 한국대승불교범이종

제9회 부산문예창작마당 대상 영예

종립 동해중학교 3학년 김준호 군의 시 '등불'

BBS부산불교방송과 부산과라미 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한 제9회부산 문예창작마당에서 종립 동해중학교 3학년 김준호 군이 시 '등불'로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모가 진행됐던 문예창작마당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어는 '성찰의 마음자리'였으며, 부제는 나눔, 돌아보기, 이해, 꿈, 희망이었다.

참가자들은 일상과 자연, 현실과 상상의 세계속에서 반짝이는 순간

을 자신만의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한 시, 운문, 그리기(웹툰) 분야의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 군을 포함한 대회 대상 수상자(총 4명)에게는 문화상품권 및 상장 수여됐으며, 이날 동해중학교 3학년 송민(우수상), 최지빈(입선) 학생도 함께 수상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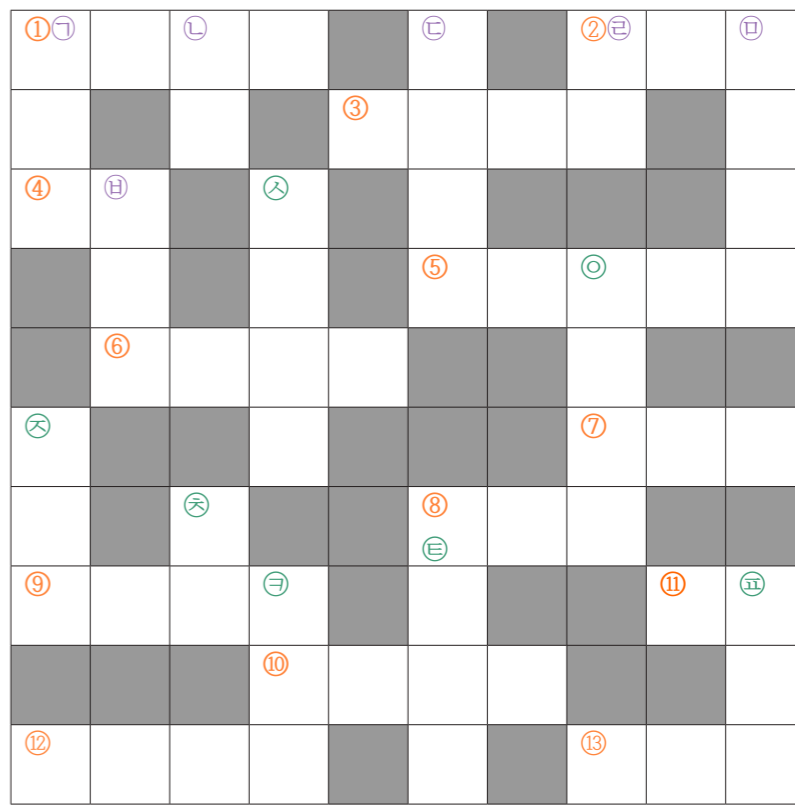
한편 김 군은 이에 앞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심산 스님)와 부산과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백명숙)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생명나눔 백일장 시부문에서 '삶의 반침대'로 대상 영예를 안은 바 있다.

등불

김준호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
그것은 나를 자꾸 건드리고 괴롭힌다.
그때마다 돌아보고 반항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 채 건다가 등불을 찾았다.
등불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 덕인지,
그것이 더 명확히 보인다.
나를 건드리고 괴롭힌 것이 어렸던 나였다.
그 등불로 앞을 밝히면서 걸어간다.
그 등불의 이름은 '성찰'이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 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망자의 기일 등에 불사(佛事)를 봉행하는 법회
- ②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은 팔구체 향가
- ③ 앞은 대개 손바닥 모양으로 깊이 갈라져 있고, 가을에 아름답게 물드는 나무
- ④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구나. 이상의 ○○
- ⑤ 흥사단을 건립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 ○○○ 선생
- ⑥ 성냥의 날뿔을 이르는 말
- ⑦ 한데 쌓여 있거나 모여 있는 사물의 데미
- ⑧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영부인'의 방언
- ⑨ 태풍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맑게 갠 무풍지대, '허리케인의 눈'이라고도 불림
- ⑩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관용적으로 쓰이는 글귀
- ⑪ 수업이나 모임 따위에 나가 참석함
- ⑫ 가을철에 부는 상쾌하고 선선한 바람
- ⑬ 지표면의 암석이 상온, 상압에서 풍화 작용으로 분해, 이동되어 지구 표면에 쌓이는 작용으로 생긴 암석

세로 열쇠

- ① 음력 8월 15일 명절.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 음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 ②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용품, 불구라고도 함
- ③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
- ④ 사원에서 일을 맡아 처리해주는 남성을 높여 부르는 말
- ⑤ 각각의 집집마다
- ⑥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 ⑦ 낮 시간 외에 밤에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함
- ⑧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 ⑨ 서리를 맞아 가며 자라다고 하여 명칭이 붙은 검은 겹고 속은 파란 콩
- ⑩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道理
- ⑪ 이치에 맞지 않아 말이 도무지 되지 않음
- ⑫ 눈 멩치로 만든 사람 형상
- ⑬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국보 제24호

석관실버복지센터, 하반기 사회교육 개강

'두뇌건강클라쓰', 실버로빅 등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달 12일 어르신들의 학습 능력 개발을 돕고 여가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강했다.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총 35개 강좌를 마련하여 진행되고 있

며, 치매예방 특화사업 '두뇌건강클라쓰', 디지털 문해력 향상 '스마트클라쓰',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 실버로빅 등 체육프로그램, 언어적, 음악적 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총 6개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중심의 주도적 활동과 깊이 있는 학습으로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02-957-9923

복날 맞아 '복답 복답한 복달음 DAY'

양지동제1복지회관, 130여 명 참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양지동제1복지회관에서는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행사 '복답 복답한 복달음 DAY'를 지난달 14일 개최했다. 유독 더웠던 올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지역 어르신 및 주민 130여 명이 참여했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운천사 윤비연 영식(8월 16일 별세)
정원심 전수 모친, 해봉 정사 빙모

- 49제 봉행 안내 -
9월 25일(수) 마산 운천사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회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회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명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회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회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회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회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오희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중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길5길 12 (하차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로1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경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로4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4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혜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멀리서 가까이서 승강기 대작불사에 동참하시고, 회향시까지 기도 정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지사 승강기 대작불사가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불사는 오로지 부처님의 무량한 가지력과 동참자들의 무진서원과 정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생들의 정성과 간절함에 일체처 일체시에 감응하시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중생들의 일체 고난과 소원을 들어주시는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자재보살님, 제20대 통리원을 비롯한 총지사 승강기 대작불사 회향까지 정진해 주신 분들과 모든 동참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강기 불사에 동참해주신 교도들의 사연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승강기 계약체결과 동시에 비치한 ‘무상함’은 매일 바빴습니다. 서원당 오실 때마다 보시하시는 분, 매일 먹던 간식을 끊고 간식비를 모아서 하신 분, 태중의 아기 순산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순탄한 삶을 기원하며, 또 거동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종령님께서서는 취임식 축하금을 봉투째 무상함에 보시하셨습니다. 어느 기로 스승님은 법륜회비 전액을 총지사 교화발전과 유연중생의 은혜 갚는 일이라며 선뜻 무상함에 넣으셨습니다. 또 그간 해오던 적금 만기가 하필 이때임은 보시하라는 법문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무상함을 개고할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습니다. 동전부터 고액수표까지 거의 대부분 무상함을 통했기에 하신 분이나 특히 회사금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강기가 한층 높아질 때마다 동참하신 분들의 만사도 한층 원만 성취되길 발원하며 무상함을 관리해 왔습니다. 공사 진행 중 생각지 못한 거금의 추가금액이 발생했으나, 계산해가면서 진행한 듯이 아주 딱 맞아떨렸습니다. 깊은 감동과 함께 당체법문을 들었습니다. “불사는 진실한 용맹정진! 그 자체가 기본이고 처음이자 끝이다.”

총지사 설립 48년 만에 세워진 승강기는 118년 만의 폭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큰 원력과 용맹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올라 불공할 수 있는 서원당이 되었습니다. 총지사는 더욱 용맹정진하여 서울의 한 가운데에서 복덕을 증장할 수 있는 법신불의 도량으로, 비로자나 법계궁으로, 모든 보살의 깨달음의 전당으로, 그리고 일체유정들의 복덕의 원천으로, 또한 고해 중생들의 안식처로, 죄업중생의 수도 해탈처로 나아갈 것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승강기 대작불사에 동참하시고 회향시까지 기도 정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자자손손이 무탈의 행복을 누리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총기 53년 8월 24일
총지사 주교 록경 합장

